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역대 최고치

전체 매수건 중 5.4%가 20대 이하
강남 3구는 5.8%로 최고치 경신

한국부동산원 5월 집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일각에서 주택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이하 연령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연령대의 매수는 사실상 부모세대의 매수라 봐도 무방한 자녀세대인 만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시장 내 팽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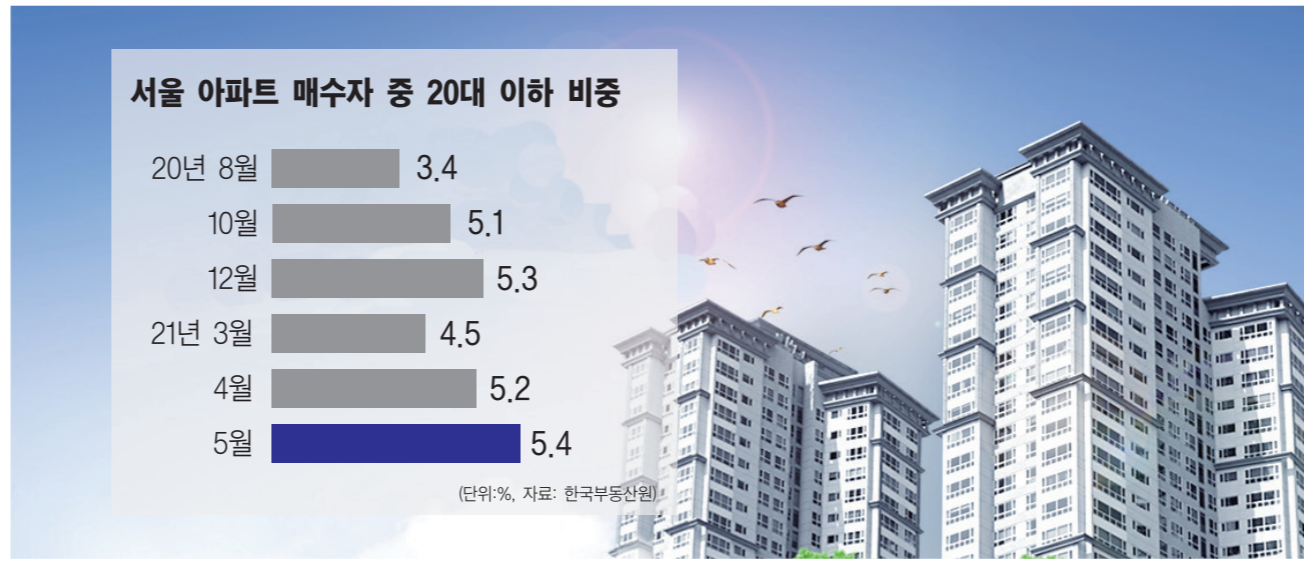
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77건)다.

이는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0월(5.1%) 처음으로 5%를 넘겼고, 12월에 5.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5.1%)과 2월(4.2%)에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3월 4.5%, 4월 5.2%, 5월 5.4%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11.1%)가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9.2%), 도봉구(8.9%), 구로구(7.8%), 중구(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이나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1월 2.7%, 2월 3.1%, 3월 3.2%, 4월 4.5%에 이어 5월 5.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강남구는 10대와 20대의 아파트 매수 비



중이 3월 1.8%, 4월 4.2%, 5월 7.2%로 2개월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20대 이하 연령층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모세대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들 세대의 매수 증가는 사실상 부모의 주택 매수라고 봐야한다”며 “부모세대가 왜 자식을 동원해서 매수에 나서는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 시장 내 고점이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하반기 주택시장은 저금리에 유동성이 많은 데다 입주물량도 많으므로 강보합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전 분양과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미미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단단한 인프라 갖춘 오피스텔

건대 트레비앙

은일종합건설이 오피스텔 ‘건대 트레비앙’(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6-1번지 외 16필지 일원)의 청약접수를 이달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7~30㎡, 총 387실 규모다. 특히 무인택배함과 피트니스 센터 등이 조선택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편의 경우 7호선 아린대공원역과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워 강남권과 잠실을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서울에서 유동성이 큰 상권 중 하나인 건대입구 상권이 위치하며 롯데백화점, 건대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청약 통장 유무와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신청금 500만원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2억5539만~5억8413만원에 책정됐다. 건본주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2-3번지, 1층에 위치한다. 7월 5일 - 청약접수

“규제완화 기대지역 호가 높게 유지, 서울 APT값 0.12% 올랐다”

인천 0.48%→0.57%, 안양·의왕도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0.17%↑... 지난해 오름폭 유지

규제완화 기대지역의 호가가 높게 유지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인천과 안양, 의왕 그리고 지방에선 제주의 오름세가 돋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4주(지난달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0.27%)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0.35%→0.35%)은 상승폭 유지, 지방(0.19%→0.20%)은 상승폭 소폭 확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서울(0.12%→0.12%)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는 축소됐으나 규제완화 기대지역 등의 호가가 높게 유지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0.17%)는 반포·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소폭 축소됐다. 송파구(0.15%)는 잠실·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오르며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동작구(0.18%)는 상도·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신정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두 자치구 모두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에선 노원구(0.26%)가 눈에 띈다. 이 일대는 교역환경 양호한 중계동과 상계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14%)는 쌍문·창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07%)는 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48%→0.57%)은 상승폭 확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박미나 기자

대가 관측됐다. 자치구별로 연수구(0.48%→0.74%)는 정주여건 양호한 옥련·연수동 소형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45%→0.71%)는 용현·관교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경기(0.44%→0.43%)에선 안양, 의왕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GTX-C노선의 영향으로 보인다. 안양은 0.80% 올랐다. 전주 0.77% 오른 것과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

다. 자치구별로 안양 만안은 0.43%, 안양 동안은 0.99%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안양 동안구의 경우 역세권과 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주 0.65% 올랐던 의왕 아파트값 변동률은 급주 0.78%로 상승폭이 커졌다.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오산(0.92%→0.96%)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내삼미동과 부산동 위주로 값이 뛰었다. 5대광역시는 0.22% 올랐다. 전주

문용규 기자

비규제지역, 정주여건 우수

한화 포레나 서중주

한화건설이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4번지 일원에 지어질 ‘한화 포레나 서중주’의 청약접수를 이달 5~6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77~84㎡, 총 478가구 규모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주방 동선을 극대화한 ‘L’자형 주방설계가 적용된다. 교통을 살펴보면 중앙탑IC와 82번 국도를 이용해 인접지역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가 위치한 충주공업도시에는 많은 기업의 입주 및 유치가 예정돼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경과 등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비(非)규제지역에 위치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분양가는 2억8290만~3억3880만원에 책정됐다. 건본주택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82-14번지에 위치한다. 7월 5일 - 1순위 접수 / 7월 6일 - 2순위 접수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성공하는 기업의 공식, KMAC에서 해답을 찾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의 파트너,
KMAC는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 경영컨설팅사입니다.

기업가치혁신 | 공공혁신 | 진단평가 | 리서치 | 디지털·데이터 | 에너지·환경 | ESG | 대학사업 | 스마트교육 | 글로벌연수 | 미디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 TEL : 02-3786-0114 | www.kmac.co.kr